



# 최근 산업보건동향

한국산업위생협회  
kohma.kr

E-mail kohma@kohma.kr

Tel 02-782-3380

Fax 02-836-3380

[발행일] 2024. 4. 29.

## 한국산업위생협회

### 2024년 전국기업체 산업보건협의회 춘계세미나 개최

- 일시 : 2024. 5. 10(금)12:30 ~ 5.11(토) - 5.11 일정은 운영위원 限 진행
- 장소 : 대전 호텔ICC 2층 컨벤션C홀
- 행사 프로그램 (첨부 참조)- 고용노동부 산업보건정책 동향 및 전문가 특강, 기업체 우수사례 발표 등  
- 기타 행사 : 친목의 장, 안전보건 및 건강증진관련 위생용품 전시 등
- 참석자는 사업장별 참석 인원(세미나 참가신청서)을 작성하여 메일로24.5.1일(수)까지 반드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mail : sungrak.choi@sk.com, TEL : 010-5056-3474(사무국장 최성락)
- 회 비 (社별 회비 삭제 및 개인별 회비로 통일)  
- 회 원 : 5만원/인당 (회원가입은 참가 신청서에 가입여부 표기 or 기산협 홈페이지 가입 가능)  
- → 홈페이지 가입은 4/22(월) 附 진행 가능 (<https://www.kisanhyup.co.kr>)  
- 비회원 : 7만원/인당  
- ▶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해 회비는 행사당일 접수처에서 받을 예정이며,부득이 사전 입금을 희망하시는 회원사는 아래 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카드결제 가능(영수증 출력), 비영리 단체로 회사 경비 처리 가능  
- ※ 현금 수납 및 일반 계산서 발행 희망 시 사업자등록증 첨부 별도 메일 要  
- ※ 입금계좌: 우리은행 1005-703-833048 (전국기업체 산업보건협의회)

붙임: 1. 세미나 세부 프로그램 및 세미나 참가 신청서 1부 .  
끝.

### 발전기금 모금요청의 건

1. 기금 요청 목적  
1)산업위생전문가의 권익보호와 산업재해 예방 그리고 단합  
2)산업보건종사자 및 회원들을 위한 활동
2. 기부방법  
1)현금 : 계좌번호 국민은행 260201-04-2151153 예금주 한국산업위생협회  
2)현물 : 발전기금 운영위원회와 기부자 간의 협의  
3)정기적인 기부를 위해 자동이체(CMS)가능함.
3. 기부혜택  
1)법인 : 지출 기부금에 대하여 소득금액의 10% 한도 손비 인정  
2)개인 : 기부금의 15% 세액공제(단, 3천만원 초과시 25% 한도)
4. 기금 지원대상 및 운영방법  
1)지원대상 :  
-협회지 발행, 장학금 지급, 학술대회, 워크숍,힐링캠프, 체육활동  
-기타 발전기금 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 등  
2)운영방법 : 협회 재정과는 별도 비용집행 및 회계처리, 정기적인 감사 실시, 운영실적 정례보고
5. 기타사항  
1)발전기금 참여신청서, 자동이체 이용 신청서는 협회 홈페이지/알림소식/  
발전기금운영위원회 참조  
2)문의사항 : 발전기금운영위원회 양정란 간사(010-2345-3035)

정부·국회

한눈에 쏙~ 들어오는 업종별 안전보건 가이드,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관리 어렵지 않아요

- 보다 쉽게 현장 중심 핵심 내용으로 간소화
- 업종별 협·단체와 23개 업종별로 제작, 현장 설명회도 개최

소규모 사업장의 사업주들이 보다 쉽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간소화된 안전보건관리 가이드가 제작되었다. 이를 활용해 소규모 사업장에서 업종별 특성에 맞게 중대재해 예방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번 가이드는 업종별로 다수 발생하는 사고사례를 그림으로 소개하여 업종별 유해·위험요인과 이에 대한 예방 준수사항을 쉽게 설명했고, 안전·보건 확보 핵심의무사항을 체크리스트 형식으로 만들었다. 이에 사업장에서 안전보건 예방조치를 쉽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정부 주도가 아니라 사단법인 한국외식업중앙회, 사단법인 대한숙박업중앙회 등 25여 개의 개별 업종별 대표 협회·단체와의 간담회를 통해 대표적인 위험사례와 유해·위험요인 등을 발굴·반영함으로써 보다 현장에 적합하고 실효성 있는 가이드가 될 수 있도록 했다.

“산재 사고는 언제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는 만큼, 꼭 「산업안전 대진단」을 실시하고 사업장 현황에 맞는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갖추어 중대재해를 예방하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의 건강관리 및 직업병 예방은 근로자건강센터를 활용하세요

- 4월 26일, 전국 「근로자건강센터」 워크숍 개최, 근로자 건강센터 우수사례 공유 및 향후 발전방안 논의 -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4.26.(금) 10:30 천안에서 「근로자건강센터」의 성과와 한계를 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워크숍을 개최했다.

「근로자건강센터」는 2011년 인천 남동공단에 처음 설립된 이후 현재까지 전국에 24개 센터가 설치되어 있으며,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간호사, 물리치료사, 산업위생사, 심리상담사 등 전문인력이 배치되어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건강지킴이 역할을 하고 있다. 센터는 상대적으로 보건관리가 취약한 영세사업장의 근로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뇌심혈관질환 및 근골격계질환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건강검진 결과 직업병 질병의 소견이 있거나 관찰이 필요한 근로자의 사후관리, 작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컨설팅 및 교육 등을 하고 있다.

먼저 근로자건강센터 발전방안 토론에서는 인구 고령화와 외국인력 증가,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고용형태 다양화, 감정노동,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확대 시행 등 산업안전·보건을 둘러싼 새로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 및 기업의 직업병 예방에 대한 투자 확대, 직업병 예방을 위한 근로자 건강센터의 역할과 기능을 확대하는 방안 등에 대해 참석자들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는 등 열띤 논의가 이어졌다.

※ 세부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6461](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6461)

※ 세부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6479](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6479)

## 안전보건공단

###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를 안전 교육시간으로 쉽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 근로자별 교육일지 외 작업일지·모바일 앱·동영상 등 다양한 방법 인정 -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다양한 방식으로 작업 전 안전 점검회의(TBM, Tool Box Meeting) 개최 실적을 관리할 수 있도록 서류 작성 부담을 완화하여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란 작업 직전, 현장 근처에서 관리감독자 등을 중심으로 작업자들이 모여 오늘의 작업 내용과 안전한 작업 방법에 대해 서로 확인하고 논의·공유하는 활동으로 산업재해 예방의 핵심 수단이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는 매년 12~24시간 이상 근로자 안전보건 정기교육을 실시해야 하는데, 고용노동부는 ‘23년 12월부터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를 교육시간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장에서는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를 내실있게 운영하고도 근로자별 교육 실적을 서면으로 관리해야 함에 따라 별도의 서류를 작성하거나 추가 교육을 실시하는 사례도 있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교육일지, 작업일지, 어플리케이션, 동영상 등 다양한 방식의 기록도 인정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의 안전보건 정기교육 시간 인정에 관한 지침”을 시달했고, 사업장에 설명자료 및 사이렌 등을 통해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위험성평가를 아무리 잘 해도 이를 현장 근로자에게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면 안한 것과 마찬가지”라며, “가장 현장성이 높은 안전교육이라고 할 수 있는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를 내실 있게 진행하면 법상 안전교육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라며 활성화를 강조했다.

### 주간 사망사고 속보

- [4/18, 경북 경주시] 지붕 상부 이동 중 지붕재가 파손되어 떨어짐
- [4/18, 경기 수원시] 작동 중인 롤러기 청소작업 중 끼임
- [4/18, 경북 문경시] 크레인으로 인양중인 판넬에 맞고 떨어짐
- [4/17, 서울 강남구] 이동식틀비계 위에서 방수작업 중 떨어짐
- [4/20, 경기 안성시] 파쇄기 내 이물질 제거 작업 중 파쇄기가 작동하여 끼임
- [4/20, 경기 평택시] 파일공사 중 파손된 향타기 부품에 맞음
- [4/22, 전남 진도군] 교량 하부 작업발판 해체작업 중 바닥으로 떨어짐
- [4/22, 경기 고양시] 자동 목재절단기의 목재 제거작업 중 절단기에 끼임
- [4/23, 전북 고창군] 자재운반용 동력운반차를 회전하던 중 장비와 비계난간 사이에 끼임
- [4/24, 경기 남양주시] 컨베이어 벨트 상부 케이지에 걸린 비닐 제거 중 끼임
- [4/24, 충남 공주시] 세척작업 현장 감독 중 후진하는 차량에 부딪힘

※ 세부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6488](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6488)

**산업현장 '우수 안전제품' 출품해 주세요!**

- 우수 보호구, 안전장치, 방폭전기기기 등 품평회 개최- 5월 10일까지 공단 인증원에 접수, 8개 제품 선정예정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중주, 이하 '공단')은 산업현장의 우수 안전제품을 선정하여 시상하는 「방호장치? 보호구 품질대상(大賞) 품평회」 접수를 4월 16일부터 시작한다. 올해 28번째를 맞는 품평회는 산업현장에 안전한 제품의 유통과 사용을 유도함으로써 산업재해 감소를 목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신청 대상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인증을 취득한 방호장치(안전장치, 방폭기기, 가설기자재) 및 보호구 등이다. 품평회 신청은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신청서와 함께 해당 제품을 5월 10일까지 공단 인증원에 접수하면 된다.

\* 관련 : 공단 홈페이지(<https://www.kosha.or.kr>), 문의전화(052-7030-945)

공단은 신청제품을 대상으로 제품형태와 외관, 구조 및 기능의 진보성, 사용의 편의성 등을 평가하는 온라인심사 및 전문가 심사로 최종 8개의 우수제품\*에 상금과 상패를 수여할 계획이다. 과거 수상작이나 고용노동부 특별점검 결과에 따라 안전인증이 취소된 사실이 있는 업체나 관련 제품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 대상 1개 제품(200만원), 재해예방 혁신상 1개 제품(150만원), 최우수상 2개 제품(100만원), 우수상 4개 제품(50만원)

최종 수상 결과는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6월에 발표된다. 수상제품은 7월초 일산 KINTEX(킨텍스)에서 개최되는 국제안전보건전시회에도 전시될 예정이다. 또한 공단은 해당 제품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공단 본부 홍보전시관에 수상제품을 상설 전시하고, 홈페이지 홍보와 소개책자 제작·배포도 병행할 예정이다.

지난해 품평회에는 총 20개사에서 26개 제품을 출품하였으며, 총 8개 제품이 수상\*했다.

\* 「대상」은 이동식 틀비계의 작업발판 및 안전난간 개선을 통한 추락 방지용 가설기자재가, 「재해예방 혁신상」에는 보호복 내 공기 주입을 통한 화상방지 보호복(방열복) 등이 수상

공단 신용우 산업안전보건인증원장은 “품질대상 품평회를 통해 안전성 높은 제품이 산업현장에 유통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면서, “근로자들이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우수제품 개발지원에도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끝)

**※ 세부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

<https://www.kosha.or.kr/kosha/report/pressreleases.do?mode=view&articleNo=449088&article.offset=0&articleLimit=10>

**안전보건공단 공공기관 동반성장평가 최우수 등급 달성**

**산업안전보건에 중소기업 니즈 반영 전략 수립 높게 평가**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중주, 이하 공단)이 2023년도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달성했다.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 동반성장과 상생협력 분야에서 공공기관의 선도적인 역할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이번 평가는 134개(공기업형 32개, 준정부형? 기타형 102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동반성장 추진 실적과 협력 중소기업의 체감도 조사 결과를 합산해 최우수? 우수? 양호? 보통? 개선 등 5개 등급으로 발표된다. 공단은 지난해 '양호'등급을 받았으나, 이번에 2등급이 향상된 결과를 얻었다.

공단은 중소기업 니즈를 반영한 동반성장 지원전략 수립으로 ▲ 안전 신기술보유 스타트업 단계별 성장지원 ▲ 스마트 안전장비 시장 생태계 구축 ▲ 상생거래 환경조성을 위한 결제환경 개선 등이 높게 평가되었다.

공단 안중주 이사장은 “사회적 책임 실천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최우수 등급이라는 결실로 나타났다”라면서 “동반성장 문화정착을 위해 혁신과 소통을 바탕으로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끝)

**※ 세부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

<https://www.kosha.or.kr/kosha/report/pressreleases.do?mode=view&articleNo=449099&article.offset=0&articleLimit=10>

## 오이레터

### 중소기업 안전·기술혁신 두 마리 토끼 잡는다

#### 안전보건공단·이노비즈협회 업무협약...“중소기업 중대법 대응지원”- 회원사 중심으로 산업안전 대진단, 재정지원 사업 등 참여 확대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 이하 공단)과 이노비즈협회(협회장 정광천)는 4월 18일(목) 11시 이노비즈협회 대회의실에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하 '이노비즈기업') 및 회원사의 산업안전 대진단 참여 확산과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지원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올해 1월 27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확대·시행됨에 따라,

양기관은 협약을 통해 이노비즈기업\*으로 인증 받은 중소기업과 협회 회원사를 중심으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힘을 합치기로 했다. 특히,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추진 중인 '산업안전 대진단'의 사업장 참여와 안전보건체계 구축을 위해서도 함께 노력할 계획이다.

\* 업력 3년 이상의 중소기업 중 기술혁신능력, 기술사업화능력, 기술혁신경영능력, 기술혁신 성과 등을 심사하여 인증

#### ◆ 업무협약 개요

- (일 시) 2024. 4. 18.(목) 11:00
- (장 소) 이노비즈협회 대회의실(2층)
- (협약대상) 안전보건공단(안종주 이사장), 이노비즈협회(정광천 협회장)

구체적인 협력사항은 ▲이노비즈기업 및 회원사의 산업안전 대진단 참여 확산으로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이행 지원 ▲안전의식 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 등 공동 노력 전개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재정지원 ▲사업주 및 근로자에 대한 교육기술지원과 안전정보 제공이다.

한편, '산업안전 대진단'에 참여한 사업장은 스스로 안전에 대한 '자가진단'을 실시하고, '정부 지원사업'을 신청함으로써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하는데 따른 부담을 덜 수 있다. 정부지원 사업을 신청하면 안전보건에 관한 컨설팅, 기술지원, 재정지원, 교육 등이 제공된다.

희망 사업장은 안전보건공단 누리집 (<https://www.kosha.or.kr>) 초기화면 팝업에서 '산업안전 대진단'에 참여할 수 있으며, 1544-1133번으로 전화하면 궁금한 사항이나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안전보건공단 안종주 이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많은 이노비즈 인증기업 및 회원사의 산재예방에 힘쓰게 되었다"면서 "산업안전 대진단을 통해 안전보건체계구축에 따른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끝)

#### ※ 세부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

<https://www.kosha.or.kr/kosha/report/pressreleases.do?mode=view&articleNo=449156&article.offset=0&articleLimit=10>

### 특수건강진단 사전조사를 빠르고 정확하게 시행하는 방법

#### 특수건강진단 사전조사의 중요성

특수건강진단 사전조사란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기 전, 사업장 보건관리자와 특수건강진단기관이 해당 사업장에서 특정 야간시간에 근무하거나, 물질 등을 제조, 취급, 사용, 운반 시 발생하는 유해인자를 파악하고, 이에 노출되는 근로자들이 적절한 특수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특수건강진단 사전조사지침 2022](#)>

- 위 문장을 육하원칙에 따라 아래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
- Who & Where: 사업장 보건관리자와 특수건강진단기관
- When: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기 전
- What: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대상 유해인자
- How: 유해인자 파악
- Why: 근로자들이 적절한 특수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사전조사는 특수건강진단 시행의 첫 단추입니다. 사전조사가 잘못되면, 유해인자를 누락할 수 있고 이로 인해 근로자들이 적절한 특수건강진단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중요한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사전조사를 위한 수가가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사전조사에 소요되는 노력은 비슷

사전조사는 특수건강진단을 시행하는 사업장의 규모와 무관하게 비슷한 수준의 노력이 요구됩니다. 즉, 10인 사업장이나 100인 사업장이나 비슷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100명의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특수건강진단을 하더라도, 10인 사업장 10개소를 하게 되면 10번의 사전조사를 해야 하고, 100인 사업장으로 하게 되면 1번만 시행하면 됩니다. 사전조사에 소요되는 행정적 부담 때문에 검진기관 직원들이 **소규모 사업장보다는 규모가 큰 사업장의 특수건강검진을 선호하는 현상**은 당연합니다.

저는 이전에 근무했던 검진기관에서 사전조사 담당직원들이 많은 근무량으로 잦은 야근을 하는 것을 보면서, 그 직원을 도와줄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사전조사를 빠르고, 정확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그 결과 2022년에 "인더닥터"라는 회사까지 창업하게 되었습니다.

-이하 생략-

#### ※ 세부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

<https://52letter.stibee.com/p/74/>

**산업환기, 쉽게 이해하기**

환기의 기본적인 역할은 공기를 순환시켜 원치 않는 냄새를 제거하거나 실내의 오염된 공기를 실외로 배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환기 앞에 '산업'이라는 단어가 붙어 '산업환기'가 되면 더 복잡한 공학적 개념과 물리학 법칙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은 이 내용을 쉽게 설명해보려고 합니다.

**환기의 중요성: 역사적 배경과 현대적 적용**

19세기 중반, 나이팅게일은 전쟁터의 야전병원에서 전투 중 부상보다 감염으로 인한 사망이 10배 많다는 충격적인 통계를 발표했습니다. 그녀는 이 사실을 '장미 그래프'라는 혁신적인 인포그래픽으로 세상에 알리고, 새로운 위생 정책을 수립하여 현장에 적용하였으며, 병원 설계의 기본 개념을 제시하였습니다. 나이팅게일은 오염된 공기가 수많은 질병의 원인이 된다는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적절한 환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실내 공기가 전국적인 사망의 40%를 차지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유튜브\] 감염병 물리친 나이팅게일의 실제 활약](#)

[\[유튜브\] 즐거운 수학 EBS MATH - 통계로 세상을 치료하다](#)

2013년 영국 세인트루크병원 나이팅게일병동에서, 환기가 호흡기 질환의 확산을 얼마나 예방할 수 있을지를 밝히기 위해 공학적 실험연구가 진행되었습니다. 병원 내 호흡기 질환을 가진 환자가 지속적으로 기침을 할 때, 병원 내 공기에 항원이 얼마나 확산되는지를 시뮬레이션 했습니다. 연구 결과, 겨울철을 가정해 창문을 닫아놓은 경우는 창문을 열어놓은 경우보다 **항원 노출 위험이 4배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논문\] 자연 환기가 되는 대형 병동의 환기 및 공기중 감염 위험 추정](#)

[\[뉴스\] 환기 안 하면 실내 바이러스 가득](#)

**환기 시스템의 문제점**

병원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감염병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음압기를 설치하여 병실을 음압상태로 유지합니다. 제조업 및 건설업에서는 근로자들이 화학물질 및 유해위험물질에 노출되지 않도록 **국소배기시스템**을 적용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환기 시스템들은 **기술적 문제로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후드의 제어속도 불량, 자바라 덕트의 굴곡 및 각도 이상으로 인한 압력 손실, 필터의 막힘으로 환기효율의 감소, 부적합한 송풍기 용량, 덕트 연결부위인 캔버스의 물리적 손상과 같은 요인들은 환기 시스템의 성능을 저하시킵니다. 이러한 문제는 병원, 제조업, 건설업 뿐만 아니라, 최근 직업성 폐암의 발생으로 주목을 받았던 급식조리실에서도 확인되었습니다.

[\[유튜브\] 학교 조리실 환기장치 실태조사 및 표준 환기방안 마련 연구](#)

-이하 생략-

※ 세부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

<https://52letter.stibee.com/p/75/>